



함께 배워봅시다

예쁜 묵주 만들기

유승화 에밀리아나 | 서울대교구 종로 성당



적당한 바람과 시원한 하늘, 고운 햇빛이 고마운
이 멋진 가을날에 맞는 묵주기도 성월.
독특한 소재로 만들어 툭툭 튀는 예쁜 묵주 하나,
내 소중한 친구의 손에 살짝 쥐어 준다면
성모님의 사랑을 닮아 두 배 행복한 가을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?

◎가사의 마음을 담은 곡물 묵주

여름날 땀흘려 일군 곡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농부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알 한 알 묵주를 엮어 보자.

준비물 : 팥알 10개(콩이나 녹두 등 색이 고운 곡물이면 된다.),

말린 옥수수알 4개, 글루건

- ① 모양이 예쁘고 고른 자춧빛 팥알을 크기가 비슷한 것들로 10개 골라 놓는다.
- ② 팥을 원이 되도록 글루건으로 붙인다. 단, 마지막엔 붙이지 않고 사이를 띄어 놓는다.
- ③ 노란색의 말린 옥수수알 4개를 모아 십자모양이 되도록 붙인다.
- ④ ②의 사이에 ③을 끼워 붙인다.



◎가을을 담은 솔방울 묵주

가을 산에 올라 보면 산 위에 떨어져 있는 예쁜 솔방울들. 그냥 밧로 툭툭 차 버리지 말고 주워 묵주를 만들어 보자. 가을 향이 솔솔 내 손에 묻어 나지 않을까.

준비물 : 작은 솔방울 10개, 흰색 조화 장미 여러 개, 글루건

- ① 크기가 비슷한 작은 솔방울들을 10개 골라 원이 되게 글루건으로 끝까지 붙인다.
- ② 송이가 크지 않은(솔방울 크기와 비슷하면 좋다) 흰색 조화 장미를 십자모양이 되도록 붙인다.
- ③ ①에 ②를 붙인다.



◎반짝 반짝 구슬공주 묵주

공주병은 불치병이라고? 하지만 예쁜 구슬들로 엮어 만든 묵주로 기도를 드리는 내모습은 정말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을까.

준비물 : 크기가 작은 구슬, 가는 구리선이나 철사.

굵은 철사나 와이어, 니퍼



- ① 가는 구리선을 60cm 크기로 자른다.
- ② 구리선의 한쪽 끝에 구슬을 3cm길이가 되도록 끼워서 가운데로 보낸다.
- ③ ②의 구리선을 반으로 꺾은 후, 구슬이 끼워져 있는 부분을 매듭이 만들어지도록 묶어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어 준다. 잘 휘는 철사라서 손으로 눌러 주면 그대로 모양이 만들어진다.
- ④ ③이 목주알 크기만큼 동그란 모양이 되면 구슬이 움직이지 않게 철사를 꼬아 준다.
- ⑤ 그 다음 또 한쪽 끝에 구슬을 끼워 ③, ④와 같은 방법으로 목주알을 10개 만든 후, 동그랗게 엮는다. 이때, 양쪽으로 남은 구리선을 모아 꼬면 되는데, 십자가를 이룰 수 있을 만큼의 여분을 남겨 두고 자른다.
- ⑥ 굵은 철사나 와이어를 작은 길이로 잘라 십자로 놓은 후 가는 철사를 엮어서 십자가를 만든다. (목주와 크기가 맞게 십자가를 만든다.)
- ⑦ ⑤의 십자가를 엮을 부분에 ⑥을 놓고 이어 준다.



구슬 목주, 나무 목주, 매듭 목주, 손가락 목주,
주변에 한 개 이상씩은 꼭 갖고 있을 법한 목주들.

주머니에 늘상 넣고 다니지만, 여러분들은 과연 하루에 몇 단의 목주기도를 드리고 있나요?

한 알 한 알 마음으로 엮어 만든 이 목주로 정성스런 기도를 봉헌하는 10월이 된다면,
하느님 보시기에 참 예쁜 우리가 될 수 있겠지요?